



이커머스는 거리로
매장은 온라인으로
온·오프 경쟁 확산
L2



Life

삼성
파리 현대미술
안방 TV로
L4



2026 제약·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후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oreaBio 한국바이오협회 주최 : metro·metro경제

‘노화 시계’ 거꾸로 돌린다… 역노화 기술로 패러다임 대전환

글로벌 헬스케어 ‘역노화’ 급부상
노화세포 제거·오가노이드 장기 등
자본·기술 집약 차세대 전략 조망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세포 리프로그래밍, 노화 세포의 제거,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장기 재생 등 첨단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며 역노화 시장은 자본과 기술이 집중되는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은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2026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수명 연장(Anti-

aging)을 넘어 세포와 조직의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려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는 ‘역노화(Reverse-aging)’ 기술의 최신 연구개발(R&D)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를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차세대 성장 전략을 심층 조망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이 맡는다. ‘항노화 연구의 동향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국내외 역노화 연구 최전선의 흐름을 짚어보고 생태계 전환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세포 리프로그래밍, 오가노이드 기술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이어간다.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이 첫 강연자로 ‘노화의 이해 그리고 미래 전략’을 공개한다. 전 센터장은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비만치료제를 중심으로 항노화·역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는 ‘노화 치료의 새로운 표적, 면역 리프로그래밍’을 주제로 메디스팬이 가진 플랫폼의 파이프라인을 공개한다. 메디스팬은 선천면역세포의 에너지 이용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대사·후성유전학적 변화를 통해, 선천면역기억을 재설정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어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3차원 미니장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노화 물질 개발 전략’을 주제로, 파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탈모, 새치 등을 되돌리는 역노화 전략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양재현 카이스트(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세포의 정보로 이해하는 노화와 역노화’를 주제로 단상에

2026 제약·바이오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20	축사	백중현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5:00	기조강연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항노화 연구의 동향과 미래전망·노화 진단 및 치료
15:00~15:30	강연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노화의 이해 그리고 미래 전략
15:30~16:0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노화 치료의 새로운 표적, 면역 리프로그래밍
16:00~16:3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3차원 미니장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노화 물질 개발 전략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세포의 정보로 이해하는 노화와 역노화

오른다. 세포에는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는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 정보를 바로잡아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역노화 패러다임 전환기에

서 국내 바이오 기업, 연구진이 확보해야 할 핵심 경쟁력과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 단장은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를 거쳐,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의대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노화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연구센터에서 20년째 노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화 분자 기전 및 노인성 질환 극복 연구 등이다.

노화 연구의 전문성, 조직 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 2019년 노화제어 전문연구단 단장을 수행했고, 후학 양성에도 관심이 많아 2021년부터 국가연구소 대학교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JT) 교수를 맡고 있으며, 한국노화학회 부회장, 연구재단 국책바이오 전문위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기초연구진흥 유공자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장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장(상무)은 기초 연구와 임상 현장을 아우르는 중개의학연구 및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분야 전문가다. 전 상무는 임상 현장에서 신경외과를 전공하고 카이스트(KAIST)에서 의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과학자’이기도 하다. 바이오 벤처 소바젠의 Neuro-onco팀장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미약품에서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를 이끌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전 상무는 중개연구, 항노화,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독보적인 R&D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등 혁신 가치 창출에 주력한다. 그 결과, 한미약품의 자체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인 ‘H.A.R.P(Hanmi AI-driven Research Platform)’ 구축이라는 결실도 거뒀다.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조경아 대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이자 메디스팬 창업자·대표다. 면역 노화와 세포 노화를 연구해왔으며, 현재 선

천면역기억과 대사·후성유전학적 조절을 통한 면역 리프로그래밍을 노화와 질환 치료제 개발로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2년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화학·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6년까지 같은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했다. 2006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됐으며, 2010년 부교수를 거쳐 2015년부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학장을역임했다.

2020년 메디스팬을 창업해 기초 연구 성과를 면역 리프로그래밍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플랫폼의 첫 파이프라인 MSP-102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와 임상 진입 준비를 추진하며, 후속 후보물질을 통해 개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국내 1호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전문 기업을 설립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 온 의

료인이자 생명공학 전문가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차그룹 오가노이드센터 센터장과 차바이오텍의 학본부장을 거쳤다. 이후 오가노이드학회 총무이사 겸 산학협력이사로 재직, 2015년부터는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2017년 재생 치료제 조성 개발 특허 출원, 2018년 치료제 동결 보관법 개발 및 이식 재료 개발 등 오가노이드 관련 15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20여 편의 논문을 냈다. 사업 성과로는 ▲장 및 침샘 오가노이드 치료제 CMC 개발 및 비임상 개발 ▲오가노이드 전용 GMP구축 ▲오가노이드 관련 약물평가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차의과대로부터 4건의 재생치료제 기술 도입 등이 있다.

양재현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양재현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생명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후성유전학 및 유전자 발현 조절 분야 연구

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세계적인 연구 기관인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세포 노화의 분자적 원인과 뇌 노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첨단 역노화 연구에 집중해 왔다.

현재는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이자 줄기세포 및 재생생물학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노화 리프로그래밍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후성유전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세포와 뇌의 노화 원인을 밝히고, 무너진 세포 정체성을 회복시켜 뇌 기능을 안전하게 되돌리는 ‘역노화(Reverse Aging)’ 분자 기전 및 치료 기술 개발이다.

세계 노화·역노화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신진 연구자로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혁신적인 과학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승률 98.4%’ 여제 안세영, 프랑스오픈서 3연패 도전
▲‘손흥민 친정팀’ 토트넘, EPL 개막 7경기 만에 감격의 첫 승 /사진 뉴시스

▲‘대표팀 무단 이탈’ 호날두, 출전정지 30일·제재금 38만원
▲KT 정규리그 우승 이끈 힐리어드, 9~10월 KB O리그 월간 MVP 선정

▲인구 1만 도시 피작에 2만명 몰렸다…‘프랑스 한글전’
▲내년 6월, 마지막 탄광촌 문 닫는다… ‘탄광촌의 생활문화’ 발간